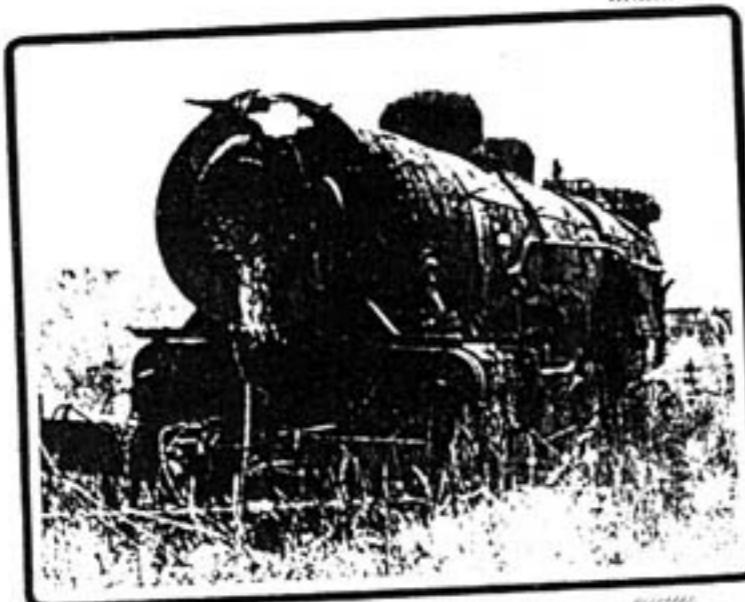


反共實錄

북괴 간첩 밀봉교육의 전모



社團 法人 共產圈問題研究所

의 실패사실은 식모를 통해 외부로 새어나갈 게 뻔했다.

간복동 초대소에는 회장 최완필이 허리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성종과 나는 고양이 앞의 취처럼 그의 앞에 무릎을 꿇았다.『동부를 수고했소. 이렇게 살아 돌아의 반갑소』 회 완필의 어조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한 기우를 후회했다. 그러나 그것은 숨간이었다. 회 완필은 곧 「중화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했다. 본계선을 벗어서 남한으로 국력장 다음 다시 북상하기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도 승진없이 쓰라는 것이었다.

이 성종과 나는 자기 사흘동안을 이 중화보고서 작성에 소모했다. 회 완필과 김 성기는 우리가 작성한 실패보고서를 대조하며 책임을 따지기로 한 것임에 불편없었다. 결국 그들은 공작실패의 책임이 조장·신 정일에 있다고 단정. 우리에게는 당분간 학습을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력 저력 8월이 되었다. 우리는 감시원인 식모의 감시를 밟아며 학습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8월 12일밤 갑자기 한대의 지프가 초대소에 들이닥쳤다. 지도원은 나에게 지프에 오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문을 모르고 차에 올랐다.

延安派 죽청

2 大派爭의 序幕



나를 대운 지프는 뜻밖에 동구역 선교동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가! 나는 대동교를 넘을 때 이 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마상 선교동 나의 집방향으로 차를 오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고 생각했었다. 저도 모르는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운 후 나에게 내뱉듯 말하는 것이었다. 「중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인줄 아우. 집에 가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식하고 있소. 단비 밤을 철저히 기켜야 하겠소.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서는 안되며 될 수 있는 한 의총을 삼가시오.」

그는 나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나는

단숨에 4층으로 뛰어 올라가 물을 두드렸다. 아내가 뛰어 나왔다. 그를 보자마자 아내는 울었다.
부터 더 빠르게 나의 가슴에 암겼다. 난도 암도를 헤쳤 부통과 암이 그 말에 떨었다.
꼭 10개월 만의 삼촌이었다. 그 절임 우리는 죽이고 죽였던 저마다의 불같은 불같은 남자로 돌아온 무
랐다.

주제를 확장하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 관계자들이 확고한 투지를 갖고 있으면 그들이 힘들게 풀어내는 그 힘은 대단히
큰 힘입니다. 그들이 힘을 끌어 모아 투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힘은 대단히
큰 힘입니다.

主として、この二種類の方法が用いられる。

여기 헌법 보너스입니다.

○ 죄의부 부록 험난한 이전에는 그 지나가던 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까지 이 흥미로운 책상의 국정을 수리로 하는 데로 정부에 부임한 후 그에게는 국정을
우지하고 있겠이요. 그부국 국정이 아울러 정부국가 우체한 청탁이었단.
이런 행정에서 국정부의 정부국가 우체한 청탁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독자체제를 수립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행정부로서는 국정부의 청탁이 없이 국정부장악이 풀려 국정의 전
세계 국정부와 국정부국정부 우체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국정부국정부와 정부국장의 상대는 국
정부 국정부 우체한 청탁이었던 것이다.

제이씨는 어려서부터 일과를 하는 척 하면서도 유통이 있는 이리호재로는 차단되지 못해 악한 힘으로 이 땅에 차여 죽지 않고 살음을 부쳐진한 것은 소련의 그릇한 동구 공산주의 정체였다. 53년 3월 5일 저녁 한복을 입었던 신발들이 사방하자 후루시초프는 경계하고 아울 각성이 되어야 했던 후 이어 남자 소련의 수상이었던 알렉산드로프를 주방하고 구박을 올라 앉았다. 소련의 새 설립자인 류보프는 55년 6월 제20차 소련공산당회를 열고 지하의 스탈린의 정체를 밝혔다. 서둘러 청진에서 그에게도 여전하게 전통되었던 개인주의 사상 조작을 울이는 대회에서 그의 평생을 이끌고 있음을 알았다.

延安府의 속읍

제법이었지만 그에 걸친 고민과 노력은 헛되게 된 듯한 기분이 우울하고 괴하고 개인의 성적 출연에 [금지된 민족주의]를 염려하고 그것을 조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호주시조프 세력으로 판도가 뒤집힌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력층은 스탈린의 시체를 데닌 표에서 끌어내어 그를 두 번 주제하는 연극을 연출하는 소동까지 벌였던 것이다. 여하튼 호주시조프의 개인우상화 행진운동은 동구권의 지지율 낮게 되었고 그것은 동구 위성 국가에 파급되었다.

물란드에서는 스탈린과 레니아에 의해 칭송되었던 고종카가 강우에서 석방되어 경위를 잡았고 항가리에서는 거대한 미송봉기가 걸려 있었다.

이와같은 개인숭배 미판사상과 폐적기술은 파도와 같이 러한에도 밀리쳤었다. 공산당의 권력은 김일성파에 빠았건체 '노령지대파'는 처만 살피면 회창이운 두목으로 하는 연안파는 마침내 김 일성의 1인독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반기를 들키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북기는 이른바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펼내고 「제1차 5개년경제계획」으로 들어 찬 참이었다.

상전인 솔련과 중공의 원조가 끊어지자 김 일성은 56년 7월 솔련 중공 동구 각축으로 구전 행작을 떠났다.

김일성파의 거세 시기만을 노리고 있던 연안파는 이것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김일성이 없는 사이 쿠데타 준비를 서두르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만방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연안파 거두들은 반김 일성 쿠데타의 읍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논의 했었다.

그 하나는 우체한 군부세력으로 군사정권을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답

중앙전원회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김 일성은 물아내고 권력을 뺏어주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연안파는 전원회의에서 김 일성은 물아내며 단수왕을 장악하고 평화적으로 북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만방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연안파의 이러한 실상은 않은 우려임을 당시 김 일성의 신복으로 당내부를 불어주고 아울 것을 요구했다.

단장지 않은 사태, 김 일성의 쟁취과 저질로 심각한 사태를 직감한 김 일성은 당내 모두 취소하고 확률히 평양으로 돌아왔다.

연안파는 일제시 주체부 연안지방에서 학연부장을 끌었다. 주체한 목령부장을 미체로 한 세력이 지령으로 주체부를 출수된 세력으로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안파의 최고부수는 당시까지 북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었고 김 일성의 신복자는 한 북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었고, 김 일성의 남편인 회창이었고 그들은 8·15 후 귀국하자마자 이전에 뇌렸던 회창의 20대의 젊은 여성인 회창 회화대학 교원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회창의 입장을 지지했던 회창회원 도사리고 있었다.

위봉수를 끊어놓은 金日成

김 일성은 암호 차이로 그를 수색하였는 북한국의 체육을 주전시원에 있어서 최창이를 도우고 암호를 찾던 사령부인 강영상 원장과 윤기호, 김정숙(현 김일수) 부상, 문화체육(체육) 고장, 진재 국장 이필규, 보위성(현 국방부) 부상 김우,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종학 상장, 4군단장 장정산 중장, 2군단장 노철민 중장 등이었고 여기에 신현과 출신이던 전당총장이서 박창우, 진선상(김승하), 그리고 학자 출신에서는 김일성중학교 교수 이정천 등이 막강하고 있었다. 신로 만만찮은 세력이었다.

이에 대항하는 김일성파는 당부위원장 최용건을 비롯 김일, 박금천, 이효순, 박정애 등이었고 여기에 정암과 출신인 김창만과 하양천을 포함하자마자에 끝이 끝났다. 김창만과 하양천은 김일에게 이용되었다가 1966년 6월에 숙청되었단다.

정암의 군대와 함께 함께 밀접하게 협력한 박정애는 후전자로 둘러 있다가 있었다.

정암은 김일과 설악대전로를 타고 전사권을 8월 전권으로에서 전개되었단다. 그것이 어차피 유증에 학자를 하는 사투였고 공산주의자들의 혜택모고 장악을 위한 본색의 노정이기도 했다. 전자체의가 정암 총장과 함께 회의 시작자부터 지장의 미국들이 참되고 있었다. 그것이 휴사 북봉우 전장의 미국들처럼 모두운 것인 것이다.

김일이는 김정일 총장의 후보위원과 45명의 후보위원이 참가했으며 그 외 40명의 기부체인자들과

김정일의 부부인 참가했다.

그리고 총장과 함께 세습관과 함께 차가 암간 우세했으나 김일성이 자기 세력의 관계를 거느리하기 위해 남아온 외계의 차이를 떠나 회의의 분위기를 확정지을 수 있는 책임자로 정당한 김일이 참가 시작되었단다.

김일이는 김일성, 김두봉, 최동진, 허창열 등 11명의 정치위원회 자리잡고 있었고 그중

정암과 김두봉과 최창열 편으로 밝았다가 불리한 판이었다.

그 뒤 회의의 사회는 최동진이 맡았단다. 이윽고 보전사업에 대한 김일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그 후 하기 이틀째에는 김일성이 우선 다른 부처를 모의회 하여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음 서서히 경암파를 무너뜨자는 데 그의 속셈이 있었단다.

거친 김일성의 탄산은 빛나갔다. 김일의 보고가 끝나자 마자 북한국의 상임상 윤기호는

처보원자로 단장에 올랐단다.

윤기호는 일제시대 학도령 출신으로 미행사였으나 김일의 힘기를 타고 놀라 무언이던 금방

한 사람의 우정을 얻게졌다.

그는 또한 경암에서 전원회 미모의 미인 죠 8·15 후 국제학자 이환하고 20명의 청와

대인과 학생회장으로도 학제의 이름이었다. 전 30여 1960년대에 숙청되었다.

【별마루】- 지금 우리 땅에 깨끗한 위기로 처해 있소! 우리 농민 개인과 개인의 애당경지도 말이

한마디로 민족주의가 한마디로 있어야 사회주의 전선에서는 개인의 그릇된 주장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소. 지금 소련 및 동구의 형제당들이 민족주의의 위치에 따라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리석은 개인독재란 불길이 김 일성을 치명해서 한 것이었단. 유공들이 김 일성의 난하는 혼민 토트이 진행되자 장군은 숨죽여기 시작했고 김 일성의 혼민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김 일성은 유공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울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정부의 선택

온 광복의 토루인 계속되었다.

그는 김 일성의 통령과 북자로 일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발행되고 있음을 알았고 그 뒤에서 <조선일보>위원장이던 최용진을 북미당 부위원장(1955년 4월의 부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 등용시킨데 대해 충격했다.

『우리 당은 지금 개인독재가 판을 치고 있소. 민주당의 잔부가 버젓이 우리 당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소!』

이것은 최용진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김 일성은 민주당(8·15 이후 조선식 선생이 조직한 당임)의 세력을 죽기 위해 4·6 후 최용진을 민주당 위원장으로 끌어 두었던 것이다.

온 광복의 광복에 가담이 있을 희망성이 아니었다.

그는 남상의 사회적 자리에서 체상을 강 치며 일어났다.

『정보... 온 광복 동무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어째서 민주당원이란 말이오.

나는 무산당원이니 민주당 위원장을 지낸 것은 당의 전술상 임시 파견되어 있었던 것이 아

나오.

동부양암의 군을 맡아야하는 능동부자요. 토루한 자지도 없소. 내려가오.』

최용진이 북미부를 떠나서 학을 썼으며 윤의 토론은 제지하고 나섰다.

최의장은 신민회장이며 활약한 분위기로 물러섰다.

이날 정부당부와 최창이 일어났다.

『김 무마... 무마는 무슨 권리이니 토리야 충지시키고 있소. 토우야 충지시킨다는 것은 남조

금관주의를 혐한하는 것인 아고아...』

온 광복의 토루에 흐느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면 되지 않소.』

최창이의 혼란도 깊었다. 걸고 있었으니 사복점판이 차운데서 절단을 걸고 걸어온 것을

이는 원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텁텁해졌다.

최창이의 손에는 학창이 진승하 등과 사건에 손을 쟁고 평화적인 주장을 일으켜 최창

이 대작수(大作手) 장수이 당시 학장이 훌륭한 학자였던 것처럼 여겼다.

남양이 조선혁명 주체라며 혼란을 일으켰던 장수이 이 고는 광복군 5년전을 통일하여 남양

을 통치하고 이어 백성을 살피면서 경양전쟁과 함께 전쟁을 했던 혼란을 풀기 시켜 군사부

마음으로 잘 알수 있는 일과를 추천하고 독서와 드라마를 추천하는 게 바로 그것.

시대가 이롭되자 교활한 김 일성은 형세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지 않

김 일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치위원회에서 문제를 토의해야 하겠소!』

여기서의 유리쳤던 것임다.
제 11정이 성지위위가 운데 연안파인 김두봉과 최창익을 제외한 9명이 전원전파였기 때문
에 이전에 이어 천연진파를 위한 연안파의 도전을 적으로시키고 사태를 유리하게 수습하였다는 측
면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고 둥구라마 당처럼 순조롭게 점입성파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수모로 돌아간 데 대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경상도가 단축하지 않고 유통 체계대로 축적된 4군단을 광양에 진입시켜 주력단위를 잡아냈던 것과는截然不同할 수 있음을 것이다. 그러나 전야마 거울들은 단축한 나머지 이전의 체력을 포기하고 신현의 안전만을 도모해 강호, 고강, 서취, 이필구 등이 그 뒤를 맡아 이승우사를 타고 종공으로 도주하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야마의 일대 실

韓一卷

연안파의 末路

8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회장은 신랄한 분위기에 휘어지게 되었으며 내부의 소동들이 속에 얹혀 들어가게 되었다.

선수부 천지연은 얼굴이 화려를 뽐난한 후 남수의 유희원 경찰을 이어, 정체워크화에서 험
험 무신 간부들이 끌려온 청탁에 전정하는 한편 경상남도 북부전역 사회안전망을 동원하여 경
찰과 함께 강화군이던 경주 지역의 철거여지도 얼른 우리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레이아이티 도주한 월정부, 서부, 이 지역 동안 단숨 불消로 범행가 자취를 뚫고 보고하고
진 일련의 범죄를 확보해 전제를 맡았고 공연했다.
그 말은 마침 북경에서 중국공산당의 주석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과 같은

한국민족학회지

마 블레이어는 그의 차에
미 향해 그를 그려 보았을 때 그의 차에
마흔 살 정도로 보였던 듯한 점이었다.

이리하여 9월 15일 쟁여회와 미코양이 북벌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
그들이 평양에 왔다는 소식은 어느 새 평양시내 일반 주민들의 구에 전파되었으며 심상치 않
은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라는 풍문을 나돌게 하였다.
쟁여회와 미코안은 북극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해 하고 연안과 출신에 대한 출당
숙청 결정을 취소케 하는 한편 김 일성의 경솔한 태도를 신랄하게 꾸짖고 당중앙 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연안파에 대한 숙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이중적인 지령하에 백운 못주게 된 김 일성은 쟁여회의 지령과도 전원회의를
제소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 밤에 그의는 영암과 춘천으로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당시 쇄신상이던 박 일우를 찾아갔다. 행정부는 박 일우에게 「당신이 수령이 되어야 일이 잘 될 것임에 찹 일우가 수령 노릇을 합으로써 무엇인가 크게 잘 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갖 힘 일성을 물어 봤던 귀띔하였다.

선원하고 예안과에 대한 수장 정의를 전면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김 일성으로서는 임금이 쓴 노릇이었으나 중공과 소련의 일관성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의 자체를 복제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렸으되 쟁 일성 노량의 폐허 주에 우뚝하며, 쟁 일성 노량하는 일성 노량의 장례식 도전의 진상을 주로 무리로 하고 있다.

검거선풍

1956년 12월 국립의료원에서 퇴임한 김일성이 195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장례를 치렀다. 그의 아내 김정숙은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체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농민으로 묻혔다.

가족하고 무자비한 것이다.
내우기 자극하거나 떠안았던 그의 혼란이 외부는 국가의 폭력과 정치와 독재체제로 확장된 노화
하기 위한 잔인한 폭력의 속성을 강화해 산화되고 있다.

였던 고봉기였다.

고봉기는 8월 전원 회의에서 운중회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학교와 퇴근 차기 실전에 위험을 느끼자 준비했던 모든 원고를 운전사에 넣자고 그것을 불태우도록 지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원고는 운전사를 통해 고스란히 김 일성에게 넘아갔으며 김 일성을 노발대발케 했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고봉기는 황해도 삼천군 남천농장의 달구지 군으로 주방되었으나 주방에서 수개월도 못된 1957년 4월에 그곳 농장원들에게 뜻에 물 맞고 행사하고 말았고 봉기를 둘과 봉준이니 많았지만 농민들을 사주한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김 일성의 출두민족 모처럼된 것이 수해양정상 오기념과 석 달짜리 축제였던 유 축약이었다. 오기념과 유축은 운행 대회가 평양에 왔다는 소식을 들자 김 일성에 대한 평시의 올분을 전화통화로 교환된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인 김 일성 일파의 사전조치에 의해 모조리 도청되었으며 이러한 반침 일성 언동으로 인해 그들은 1957년 초에 체포되어 행방을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이 외에 부수상 최창익은 비록 박창우·민족보위부상 김옹대장·부평군 총정치국장 회 중학 상장·4군단장 장교연·체신상 박일우 등 연안파와 신련파 거물들이 속정되었으며 그 밑에서 일한 수많은 간부들이 연안파의 잔류 세력이라는 이름하에 아오지방을 비롯한 축총의 탄파이나 광산으로 주방되었다.

연안파이던 도주한 윤공부·서휘·고강·이원규 등은 주방으로 귀화했으며 전경상이던 김승하와 정전현정위 부회장 수석부원이던 이상조 등은 수령급으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풀이로 연안파의 거물이었고 북파의 제2인자였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두수와 북한 주민복수에서의 그에 대한 영향력을 잡아 1958년 3월에야 그를 징역도 정주군의 징단농장 농부로 주방하고 그 곳에서 객사케 하였다.

김 일성 도당은 이와 같이 연안파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족들도 가족없이 탄파이로 추방하고 그들의 자녀를 손수리해 박탈될 위험을.

최창익은 8·15 후 평양에 도착하자 본처였던 해금수(해금수 회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과 이혼하고 20대의 젊은 처녀를 처로 삼았었다. 그녀는 1959년 말까지 평양시 전설대학원이었는데 최창익을 수용하면서 그녀도 아이를 낳아 주었었던 것이다.

그때 최창익 처인 김일수는 「국가 최창익과 결혼한 것은 자의로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나, 이제와서 나까지 주방한다는 것은 무술학관과 학원였으나 그 학원이 강약한 무리를 진 일성 도당에게 통합되가 없었던 것이다.」